

직장인에서 수험생으로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진련하님

합격수기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관세사 합격자 진련하입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제 나이는 36세입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여 조달팀(국내 및 해외 자재 구매)에서 3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퇴사 후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1차 합격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 2차 시험에 낙방 후 2014년 동자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점수로 합격하였지만, 저 역시 수험생활을 하면서 선배 관세사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공부 방향을 잡았기에, 이 수기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처해있는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II. 불합격의 원인 -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합격의 비결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합격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합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3년 2차 시험에 낙방 후, 동자로 합격할 계획을 하고 다시 한 번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저의 불합격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불합격의 원인은 남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기에 수기에 언급하기 부끄럽지만, 이 수기를 읽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적어도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만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행착오를 이미 겪으신 분들은 합격자의 영웅담쯤으로 여기실 수도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용감하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적어 보고자 합니다.

1. 시험공부와 시험준비의 병행의 부족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간략한 정의를 내리자면, ‘시험공부’는 Input, ‘시험준비’는 Output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은 시험장 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을 Output을 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배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문항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표현(Output)해내야 하기에 ‘시험준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험공부(이해->정리->암기)에 할애하였고, 시험준비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간배분으로 인해 머릿속에 암기량은 많았지만 시험장에서 컴퓨터처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좋은 답안이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절대적인 암기량이 많아, 이를 이해하고 정리해서 암기하기에도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좀처럼 답안 쓰는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차 준비시에는 써보는 연습을 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2. ‘붙으려는 노력’ 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

김용원 관세사님께서 수업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인데, 공부의 시작에 있어 ‘붙으려는 노력’ 보다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수험생활에 있어 ‘붙으려는 노력’은 부질없는 욕심이 앞서게 했고, 이에 따라 책의 전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리하려는 노력보다는, 중요문제 위주로 무작정 암기하여 높은 배점을 받으려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제가 잘 암기된 문제에서는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험공부와 시험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을 받지 못하여, 2013년도의 모의고사 점수는 편차가 컸고, 실제 2차 시험에서는 관세법이 과락(39.5점)이었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항상 시간에 쫓겼습니다. 이러한 조급증과 단순히 붙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차근차근 이해하고 정리를 해두기 보다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여, 불합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차준비시에는 문제마다 높은 배점을 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5~6점 정도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붙으려는 노력보다는 우선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우선하였고,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고득점을 받기위해 공부량을 늘려나가며, 2014년 모의고사에서는 6문제를 빠짐없이 찍는 준비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3. 목차노트의 활용방법

제갈현근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목차노트를 관세법과 무역실무 과목에서 저 또한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에는 너무도 막연하여 책에 있는 목차를 암기하기 위해 단순히 옮겨 적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차노트로 목차만을 암기하고, 그 목차별 내용은 또 책을 보며 단순히 암기하는 식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공부방법으로 인해 변형된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졌고, 각 문제별로 판에 박힌 답안만 쓸 수 밖에 없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차준비시에는 한 논제를 공부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등의 고민을 하며 차근차근 정리하여 목차노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목차노트를 여러번 수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수정 작업은 저에게 중요한 시험준비 작업이었으며, 공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험기간 동안 느낀 점은 목차노트는 단순한 ‘목적’이 아닌 지난한 공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III. 수험기간

1. 2012년

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1차 시험을 100일 정도 앞두고 온라인 강의로 1차 기본강의 종합반을 수강하였는데, 기본강의 수강에만 50일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30일 가량은 필기한 것을 바탕으로 무조건 외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해보다는 일단 외우고보자는 식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암기 후에는 꼭 문제집을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20일 가량은 오답노트를 주로 다시 암기하며, 4월 12일 첫 1차를 치러 온 중계 합격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도서관이 아닌 집에서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편하였고,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외출을 삼가고 시험준비에만 할애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수험기간 중 가장 열심이 그 리고 열정적으로 시험준비를 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회계학은 시험 공부보다는 철저히 '시험준비' 에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1차 합격 후 2차 기본강의를 바로 수강하였습니다. 여느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관세율표와 관세평가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관세율표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4월~6월까지 2차공부를 하였으나, 각 과목의 체계를 익히고 이해만 하는 데에도 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7월 1일 첫 2차시험에 낙방 후 9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는 심화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실력부족으로 인하여 문제풀이 강의는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엔 나름대로 1차 합격이라는 수확을 거두었지만, 2차과목의 공부 성취도는 그다지 높지 못했습니다.

2.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2차 모의고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쓸 수 있는 문제보다는 못 쓰는 문제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석차는 주로 30~40등 사이를 맴돌다 보니 합격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공부량이 부족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고, 4월쯤에는 제가 가장 힘들어 했던 무역실무를 처음부터 다시 외독하며 목자와 서술 방식에 있어 대대적인 수정을 하였습니다.

유예로 지른 2차 시험에서는 안타깝지만 낙방하였고, 10월부터는 2014년 동차합격을 위해 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0월~12월 제 불합격의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한 기간이었습니다.

3. 3동차 계획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의 차이로 인해 동차합격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한 해라도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동차합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차합격을 위한 저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까지는 2차과목의 시험준비(목자노트 및 서브노트의 완성) 및 1차과목의 2회독을 마치고, 2014년 1~2월에는 2차 진도별 모의고사를 치루고, 2014년 3월은 1차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차준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1차준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10월에는 내국세법 책을 새로 구매하여, 밑줄을 긋고 이론요약 노트를 만들며 2회독 정도 해 두었고, 회계학은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온라인강의)하였습니다.
- 11월에는 관세법과 무역실무는 전에 쓰던 목자노트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정해가며, 틈틈이 유지원 회계사님의 회계학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온라인)하였습니다.
- 12월에는 관세율표는 1회독(암기)을 하고 관세평가는 서브노트를 재작성 하였으며, 회계학은 틈틈이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온라인)하였습니다.

10월~12월은 상기 서술하였던 불합격의 원인을 분석하여 저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한 시기였으며, 실력향상이 가장 많이 된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4. 2014년

- 1월~2월에는 FTA관세무역연구원에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모의고사 석차가 실제 시험과 큰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여 저 역시도 석차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 유효해서인지 저의 처음 1회~4회의 종합성적에서 8등을 하여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세평가는 협약을 증시하시는 김병수 관세사님의 문제에 적응하지 못해 관세평가의 점수는 좋지 못하였고, 관세평가의 과목별 석차는 50~80등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세평가 만큼은 복습 위주로 모의고사 기간을 보냈습니다.

- 3월에는 오로지 1차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관세법은 2차공부를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집 풀이에 시간을 할애하여 책 2회독, 문제집 3회독을 하였습니다.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출문제집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기존 기출문제와 비슷한 지문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역영어는 3대 국제법규(CISG, INCOTERMS 2010, UCP)를 위주로 영문본을 3회독 정도 하였고, 김용원 관세사님의 객관식 문제집을 3회독 정도 풀이하였습니다.

내국세법은 황OO 관세사님의 책을 바탕으로 이론 요약물 해두었고, 이를 반복해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희양 세무사님의 문제집을 2회독 풀이하였습니다.

외계학은 유지원 외계사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유형별로 문제풀이에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외계학은 3월 한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며 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1차시험의 점수는 관세법, 무역영어, 내세법은 각각 80점, 외계학은 50점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많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10시간 이상의 공부시간을 꾸준히 확보한 것이 1차 합격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 4월에는 다시 2차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차수험생이 그러하듯이 저 또한 서술형 시험문제를 다시 접하니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암기에 두었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80분 동안 답안지에 쓸 것이 많지 않아 곧바로 모의고사반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다시 전체적으로 2회독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 5월~6월에는 다시 D학원의 모의고사를 지렸습니다. 시험전 마지막 전범위 모의고사였기에 항상 실제시험이라 생각하고 제가 아는 문제는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모르는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했으며 최소점

수라도 획득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든 써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석차는 8등~14등 정도였습니다.

IV. 1차 시험 준비

1. 관세법

구민회 관세사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의 첫 1차시험 준비 때에는 10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다독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 CHAPTER씩 무조건 외우고 문제집 풀고 오답노트 만들어 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암기 위주의 공부로 인해 2차 공부를 할 때에는 가장 힘든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무역영어

김용원 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주로 3대 국제법규(CISG, INCOTERMS 2010, UCP)를 위주로 하여 외독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영어로 된 과목 특성상 암기보다는 다독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3. 내국세법

이00 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2차와는 연계되지 않은 과목이라 1차과목 중 가장 소홀한 과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주로 부가가치세법과 주세법을 위주로 암기하였고 개별소비세법은 3회독 정도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주로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며 틀린문제와 지문들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4. 회계학

김00 세무사님의 기본강의와 이00 세무사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3년동차에는 유지원 회계사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1차를 공부하는 기간에 회계학은 항상 하루도 쉬지 않고 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10문제 중 9문제 이상 맞추는데 주력하였고, 재무회계의 경우 자산 파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문제풀이시에는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을 때까지 한 자리에서 반복하여 풀며, 많은 문제를 풀기 보다는 꼭 맞춰야 하는 문제 유형을 위주로 수 없이 반복하여 풀이 하였습니다.

V. 2차 시험 준비

후술할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방법입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각자만의 공부방법이 있듯이 저 또한 저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시간 필요했습니다. 제 방법이 반드시 옳은 방법만은 아닐 것이므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관세법 (69.5점)

(1) 강의 및 교재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본강의-심화강의를 2번씩(2011년도 강의와 2012년도 강의)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는 관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빠짐 없이 필기하려고 노력했으며 특히 서술시 빠지지 않아야 하는 단어와 문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관세사님께서 수업 중에 각 Chapter별 관련성을 많이 강조하셔서 각각 관련된 페이지를 반드시 표시해 두며 복습할 때마다 반복하며 목차노트에 삽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시험공부

저는 제갈현근 선생님 책을 기준으로 관세법의 분량을 크게 다음과 같이 7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 ① 2장(과세요건), ② 3장(부과와 징수), ③ 4장(환급 등), ④ 7장(보세구역), ⑤ 9장(통관), ⑥ 1장 & 6장 & 8장, ⑦ 5장 & 11장 & 12장 으로 구분하였습니다.

7부분으로 나누어 무조건 1주일에 1회독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회독을 1달 이상하게 되면 앞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아, 1주일 안에 1회독씩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시험준비

많은 분량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암기하기 하기 위해 목차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의 목차를 단순히 옮겨 적는 수준에 불과했으나, 심화강의와 모의고사를 거치며 실제 시험장에서 서술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에 맞추어 제 나름대로 목차를 줄이거나 삽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목차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답안이라는 가정하에 저의 능력 범위에서 쓸 수 없는 목차는 과감히 버렸고, 제갈현근 선생님이 꼭 기술해야 한다는 목차는 삽입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목차노트를 만드는 과정 그 자체가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갈현근 관세사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신 제도별 의의, 취지, 도입 배경은 각 논제별로 '1. 의의' 라는 목차를 두어 3~4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목차노트가 완성된 후에는 각 7부분을 하루에 한 부분씩 암기에 나갔습니다. 우선 각 부분의 목차부터 외우고, 목차에 따른 내용을 상세하게 외웠습니다.(단 서조항이 배점이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단서조항도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이렇게 시험공부가 다 된 후에는 그 자리에서 책을 덮고 꼭 써보는 시험준비를 게을리아지 않았습니다. 잘 써지지 않는 부분은 표시를 해두고 다음 회독에서 집중적으로 재암기하는 방식으로 회독수를 늘려나갔습니다.

(4) 시험점수

관세법은 69.5점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시험에서 답안지 20 page를 썼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답안에 기술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의의(도입배경, 취지), 법조문, 다른 내용과의 관계 등을 목차를 달리하여 충분히 설명하려 노력하여 다른 과목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2차 시험에서는 39.5점으로 과락을 받아 항상 더 세밀하게 암기하고 자주 써보는 연습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 관세율표 (49.5점)

(1) 강의 및 교재

조현희 관세사님의 기본강의-심화강의를 2번씩(2011년도 강의와 2012년도 강의)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는 조현희 선생님의 판서를 거의 빠짐 없이 필기했습니다. 특히 각 류별 관련내용을 수강시에는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 필기는 꼼꼼히 해두었습니다.

(2) 시험공부

저는 조현희 관세사님 법령집을 기준으로 관세율표의 분량을 다음과 같이 7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① 1부~4부, 5부, 13부, ② 6부~7부, ③ 8부~10부 ④ 11부~12부 ⑤ 14부~15부
- ⑥ 16부 ⑦ 17부~21부로 구분하여, 1주일에 1회독씩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보통 고시공부는 '이해 -> 정리 -> 암기' 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율표 만큼은 암기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선배 합격 관세사님들의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97류까지의 류의 표제를 외우고, 그 다음으로 호의 용어를 외우고, 마지막으로 주 규정(세모표와 별표 중심으로 암기했습니다.)을 암기를 하니 전체적인 틀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해설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3) 시험준비

관세율표는 주 규정과 호의 용어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배점 포인트라고 생각되어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28류와 29류를 제외한 모든 호를 암기했으며, 주 규정은 조현의 관세사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세모표와 별표 중심으로 암기했습니다. 오늘 외운 암기사항이 자고 일어나면 생각나지 않아 너무나 답답하고 암기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기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한 번 암기한 사항은 그 날 저녁, 그 다음날 저녁 등 최대 3일 정도까지는 꾸준히 써보는 연습, 떠올리는 연습을 통하여 반복 학습을 하였습니다.

(4) 시험점수

관세율표는 49.5점을 받았습니다. 관세율표는 실제 시험에서 해설서 내용은 기술하지 못하고,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중심으로 18 page를 기술하였는데, 관세법과 20점이나 차이가 나서 개인적으로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점평을 보니 단순 암기식의 답안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해설서의 내용은 거의 적지 못하고 주 규정과 호의 용어만을 단순 암기식으로 기술하였는데, 이것이 낮은 점수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3. 관세평가 (52점)

(1) 강의 및 교재

신성훈 관세사님의 기본강의와 김00 관세사님의 심화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김00 관세사님의 교재는 서브노트 형식이어서 주 교재는 신성훈 관세사님의 교재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김병수 관세사님의 교재 또한 구매하였으나, 협약의 내용이 많아 2회독 정도를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2) 시험공부

저는 관세평가의 내용을

- ① 1평가방법의 거래가격 적용배제요건, ② 1평가방법의 가산요소 ③ 1평가방법의 실제지급금액 ④ 2~3평가방법 ⑤ 4~5평가방법 ⑥ 6평가방법으로 크게

6부분으로 분류하여 1주일에 1회독씩 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성운 관세사님의 책을 밑줄을 그으며 3회독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014년에 관세법 개정사항이 많고, 협약도 개정되었다 하여 그 이후에는 이 교재를 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된 듯 합니다.

김00 관세사님의 교재는 서브노트와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 나름 대로의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김병수 관세사님 교재는 그 두께에서 알 수 있듯이 협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3년동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적은 시간 내에 관세평가 과목의 전체적인 공부방향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협약의 전체 외독은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3) 시험준비

관세평가가 다른 과목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 우선 관련 내용에 관한 서브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관세평가 과목 특성상 사례문제가 많아 이러한 문제에서는 논점을 놓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충분히 반복적으로 풀이하였습니다.

FTA관세무역연구원 모의고사 우수답안을 쓴 수험생분들이 관세평가 협약 내용을 너무 잘 쓰셨습니다. 관세사 시험이 상대평가라서 제가 협약을 포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력미달 답안지가 되지 않을파라는 불안한 마음에 관세평가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충분히 복습하는 것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협약의 내용 중에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와 동일한 내용은 제외하고 추가되는 부분만을 서브노트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례문제는 ‘문제제기 - 평가판단- 근거법령 - 판단의 이유’ 의 틀로 써보는 시험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4) 시험점수

관세평가는 52점을 받았습니다. 협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만 복습을 하여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불안하였으나, 제가 준비한 협약 내용이 출제되고 이를 충분히 기술하여 선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 무역실무 (56점)

(1) 강의 및 교재

정00 관세사님의 기본강의와 최00 관세사님의 심화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정00 관세사님의 ppt자료, 최00 관세사님의 교재, 최권수 관세사님의 교재, 박병호 관세사님의 교재를 전부 구매하였습니다. 무역실무 자체가 분량이 많고 습득이 잘 되지 않아 책만 많이 구매한 것 같습니다.

시험준비시 주 교재는 박병호 관세사님의 책과 3대 국제법규집으로 하였습니다.

(2) 시험공부

우선 박병호 관세사님의 책을 3회독 정독했습니다. 책이 방대한 만큼 첫 번째 회독에서는 꼼꼼이 밑줄을 그으며 읽었습니다. 밑줄은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문구 위주로 그었습니다. 두 번째 회독에서는 책 전체를 다시 한번 정독을 했으며, 세 번째 회독에서는 밑줄 그은 부분만을 위주로 빠르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무역실무 과목이 너무 방대하고 요약정리가 잘 되지 않아 저에게는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기억됩니다.

(3) 시험준비

무역실무 과목은 크게 '국제법규' 와 '무역학 이론' 으로 구분하여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국제법규' 부분은 계약론의 CISG, INCOTERMS 2010, 결제론의 UCP와 URC, 운송론의 해상·항공·복합운송규칙(헤이그, 바르샤바, M/T 조약 등), 보험론의 ICC, 분쟁론의 뉴욕협약을 우선적으로 서브노트화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시험에서는 보험론의 MIA 28조, 29조가 출제되어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무역학 이론' 부분은 박병호 관세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각 파트별로 목차노트를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책보다는 국제법규 서브노트와 무역학이론의 목차노트를 중심으로 반복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별로 국제법규와 무역학 이론을 적절하게 안분하여 서술하는 시험준비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4) 시험점수

무역실무는 56점을 받았습니다. 무역실무를 제외한 다른 3과목은 6문제씩 모두

기술했으나, 무역실무는 2문제나 쓰지 못해, 합격자 발표 전날까지도 과락이 아닐까 걱정하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의외였습니다.

시험 당일 외환거래법 문제와, MIA 문제(미평가보험증권 등) 문제 총 2문제를 기술했지 못하여 과락 걱정이 되서, 그 외에 4문제는 16 page를 다 채우도록 충분히 기술했던 것이 선방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5.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1) 강의 및 교재

환특법은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고, 대외 및 외환법은 최00 관세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2013년 2차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위 3과목을 소홀히 하여, 환특법문제(환급 절차)와 대외 및 외환법의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시험준비시에는 위 3과목은 별개의 한과목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공부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 시험공부

환특법을 크게 2개의 파트, 대외무역법도 크게 2개의 파트, 외환거래법도 크게 2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총 6개의 파트로 구분하였습니다. 1주일 마다 1회독씩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시험준비

2013년도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각 논제별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각 과목당 25개 안팎의 논제에 대한 서브노트를 준비하여 이 서브노트를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서브노트만을 공부하게 되는 경우 서브노트 이외의 부분이 출제되면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공부방법이라 위안하며 이렇게 시험준비를 해두었습니다.

(4) 실제시험

- 환급특례법과 대외무역법은 준비한 문제가 출제되어 2 page 정도씩 충분히 기술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은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어 답안을 기술했지 못하였습니다.

VI. 수기를 마치며

수험기간 중에 항상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며, 답안 서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내용을 반복학습한 것이 주요 공부방식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합격의 길로 이끌어 주신 제갈현근 관세사님, 조현의 관세사님, 김병수 관세사님, 신성운 관세사님, 김OO 관세사님, 박병호 관세사님, 정OO 관세사님께 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제 수험생활을 가감없이 적다보니 다소 두서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이 수기를 읽어주신 수험생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저의 공부방법은 여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내년 이맘 때에 꼭 합격의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제31기 관세사 진렬하 드림.